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8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 일시 : 2018년 5월 8일(화) 오전 11:30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오늘은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128주년 탄신일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광복 73주년이며, 선생님께서 서거하신지 73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진 유택(幽宅) 앞에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자강, 해방후 나라세우기의 위대하신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펼치신 수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김황식(金滉植) 전 국무총리님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略傳)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해방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운동은 우리역사의 선각자(先覺者)로서 미래에 대한 선견(先見)을 가지시고 우리의 선두(先頭)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큰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것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크나큰 교훈(教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평생의 친구요 동지이신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님은 고하 선생님을 충무공(忠武公)과 비견하시면서 지조와 경륜, 애국심을 겸비한 선생님의 독야청청의 일생을 기리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몇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도 없고 일제(日帝)의 탄압이 극심했던 시절 민족의 구심점으로서 선생님께서 씨뿌려 일구어 내신 민족지 동아일보를 비롯한 동아미디어그룹은 임직원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 가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지를 받들어 착실히 경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창간 98주년을 맞이하여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남 담양에 있는 선생님 생가와 “근대역사문화교육관(近代歷史文化敎育館)”은 유품전시를 완료함으로써 생가복원사업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국가보훈처와 전라남도, 그리고 담양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2017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로부터 명예도로명 ‘고하길’을 부여 받았습니다. 구간은 원서동 ‘송진우선생 집터’에서 가회동 ‘이도도자기 앞’까지로 선생님의 높은 이상과 민주건국을 위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부여하였습니다.

넷째, 2017년 6월 2일 전라남도 담양군으로부터 명예도로명 ‘고하송진우길’을 부여 받았습니다. 구간은 관어공원 아래에서 선생님의 생가 입구까지입니다.

신학문을 배워 애국애족의 응지를 펴시기 전, 이 고장에서 18세까지 생활하셨던 고하송진우 선생님에 대한 명예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담양군민에게 애국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31운동을 기획하여 옥고를 치루시고, 그 후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국민계몽운동은 물론 일장기말소사건을 일으키는 등 고하선생의 불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2017년 8월 15일 서울 도봉구에서는 도봉을 빛낸 근현대사 인물을 주제로 ‘창동3사자’ 역사문화공원을 개원하고 3사자 동상을 제막하였습니다.

창동3사자란 일제강점기 말 부일 협력을 거부하고 감시와 탄압을 피해 창동에 은둔하셨던 김병로, 송진우, 정인보 세분을 지칭합니다.

여섯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조만간 북미정상회담 등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디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던 8천만 민족의 이 나라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큰 발걸음을 내딛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굽어 살피 주십시오.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추모사를 해주실 강만희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 박유철 광복회 회장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김명구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교수님께 “고하 송진우 선생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고귀하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손이신 송상현 박사는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그간 장기간 봉사해왔던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유엔아동기금) 회장으로서 어린이들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계속 노력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꿔 나가겠사오니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2018년 5월 8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